

### “학대 없는 행복한 노후 만들어요”

#### 고창군노인복지회관 노인학대 예방 행사 열어

노인학대 등 패륜적인 사건들이 뉴스를 장식하는 요즘, 지역사회로는 드물게 노인학대 예방캠페인을 실시한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6월 27일 고창군청 앞에서 ‘학대 없는 사회, 노인과 함께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NO 학대, Yes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캠페인은 노인학대예방을 다짐하는 호 서약서 작성, 부모님께 공격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호 메시지 쓰기, 노인학대예방 사진전 등으로 진행됐다.

7월 4일 고창군노인복지회관 대강당에서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 프로젝트 1’ 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강좌와 문화행사도 진행됐다. 오전 건강강좌 등을 비롯해 오후에는 사물놀이, 판소리 등이 펼쳐졌다.

무공 스님(고창군노인복지회관 관장)은 “자식 위해 평생을 바친 어르신들이 자신의 노후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노인학대를 미연에 방지해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노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열다섯 선재, 남도사찰에 빠지다”

#### ‘남도의 선지식 찾아서’ 템플스테이 현장



백양사 쟁계루에서 성오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명 선재들이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를 찾아 특별한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다.

호남불교문화원(원장 이준엽)이 ‘남도의 선지식을 찾아서’를 주제로 연 템플스테이는 6월 25일부터 4박5일간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남지역 조계종 교구본사인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를 찾아 각 사찰 선지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호남 불교문화원만의 특별한 사찰체험을 했다.

행사를 기획한 이준엽 원장은 “백양사 주지 성오스님, 화엄사 선등선 원장 현산 스님, 송광사 원로위원 범홍 스님,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을 만나 함께 답담을 나누는 것에 큰 호응

이 있었다. 선지식과 차담시간을 가진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스님은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참가자 권태성씨는 “바쁜 현대생활을 잠시 떠나 즐기는 달콤한 휴식과 대화는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기운을 충전 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구례 화엄사 산내 암자를 둘러보며 스님에게 직접 들은 적멸보궁의 역사가 생생했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편 패키지 형태의 여정을 도입한 이번 행사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장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백련 보러 오세요”

#### 김제 청운사 백련축제 8월 17일까지



김제 청운사 백련지 모습. 7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7회 하소백련축제가 열린다.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 하소백련축제가 13만㎡ 백련지 일원에서 7월 5일 시작했다. 하소백련(鰲沼白蓮)은 새우가 알을 품고 있는 명당터에 위치해 이름한 청운사 백련을 일컫는다.

올해 7회를 맞은 하소백련축제는 백련처럼 세상을 하얗게 정화하고 자신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얼굴’이라는 주제로 8월 17일까지 열린다.

7월 5일 올해 첫 수확한 백련차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예경, 헌다로 시작된 백련축제는 해안 스님의 범패와 정읍시립국악단원의 해금 연주, 춤과 먹물재 풍물패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함께한 백련음악회로 이어졌다.

축제기간 주말마다 최병두의 ‘무명식의 강성음악’, 양태동의 필묵 행위예술, 품바공연, 춤 퍼포먼스 등이 펼쳐지고, 도원 스님의 부처님 십대제자전, 명선 명시전, 길 사진전, 김영수 불교조각전, 백련 한지 회화전, 백련 천연염색전 등이 상시 전시된다.

자반과 부침, 죽, 갈국수, 순대, 무침 등 백련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 시식회와 흙 연꽃 만들기, 부채에 불화 단청그리기, 백련 천연염색 체험, 백련차 시음 등 체험프로그램도 백련축제의 자랑이다.

도원 스님은 “8년 전 주변 농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 차를 만들 목적으로 연꽃을 심은 것이 하소 백련축제의 계기가 됐다. 하얀 연꽃의 은은한 향내가 도심의 바쁜 일상을 벗어 던지고 자연과 여유를 즐기려는 분들에게 잔잔한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 광주 무각사 청년회 창립 7월 셋째주 창립법회 봉행

청년 불자가 부족하다. 대학생 법회 소멸과 함께 청년회 위기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생각하면 큰 위기라는 호소가 곳곳에서 들린다. 호남불교 역시 어린이법회부터, 청소년법회, 대학생, 청년법회까지 법회운영이 어려운 정도다.

이런 가운데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가 청년회 창립을 위해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무각사 청년회 임시 회장을 맡은 이흥호 법우는 “7월 셋째 주 창립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불교에 관심있는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62)383-0107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사찰은 숲 생태계 지키는 파수꾼

#### 광주불교환경연대 생태 프로그램 마련

광주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범일)가 사찰이 숲 생태계를 지키는 파수꾼임을 일깨우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생태, 환경 행사를 만들어 눈길을 끈다.

7월 20일 순천 선암사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사찰생태기행’을 갖는 것으로 시작되는 행사는 가족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찰과 사찰주변 숲 생태를 체험하고 명상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8월 22일부터는 2박3일간 쌍봉사에서 제1회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도 연다. 광주불교환경연대 임상숙 사무국장 “어린이생태학교는 도시 어린이들에게 자연 체험과 명상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넓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062)223-36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 북 지 사 (063)910-5199

###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 불교전문기획사를 운영하는 이진중 대표

## “가정과 절 가까워야 해”

<구사론(俱舍論)>이 말하는 세계는 거대한 원통 모양의 풍륜(風輪)·수륜(水輪)·금륜(金輪)으로 떠받쳐져 있고, 금륜 위의 대양에는 다시 9산(九山)과 8해(八海)가 있다. 대양의 중심부에 수미산이 16만 유순(1유순은 약 7㎞)의 높이로 솟아 그중 8만 유순은 물속에 잠겨 있다. 이곳 정상에는 제석천의 궁전이 있고 중턱에는 사천왕의 거처가 있다.

옛부터 티베트와 인도 성인들은 카일라스를 수미산이라고 일컫었다.

광주에서 수미산과 같은 큰 원력으로 부처님 일을 하는 불교전문기획사 카일라스 이진중 대표를 만났다.

최근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풍경소리음악회, 백양사 야단법석 등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이진중 대표는 “카일라스에서는 사찰에서 행해지는 행사(봉축행사, 산사음악회, 해외성지순례 등)를 스님들



현대사회에서 사찰의 변화는 시급하다. 20~30대 문화적 감성세대는 법회와 기도위주의 사찰 환경은 접근하기 쉽지 않다. 각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급선무다.

“어린이와 청소년법회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대표는 가정과 절을 가깝게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진중 대표는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먼저 가까운 이웃이 되고 거리낌 없이 절을

### 최근 광주지역서 왕성한 활동 보여 각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시급

과 일반 불자들이 대신해 기획에서 진행까지 총괄 대행하는 곳”이라 설명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불교계의 열악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불교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기도 하다. 실제 사찰에서 많은 행사와 법회를 하며 체계적인 진행과 자료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터라 그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평소 낙천적인 성격인지 주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이진중 대표는 “타종교에 비해 세가 약하다고 하지만 주변 환경을 탓하기 전에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일하고 즐거운 불교신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중 대표는 이미 대불련 활동과 원각사 종무소 사무국장,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여 불교에 대한 오랜 활동인연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지역 젊은 재가불자들로 구성된 육화포럼에서 활동하며, 지역 불교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불교는 21세기형 종교”라고 전제한 이 대표는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이것을 불자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불교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많은 부문의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062) 384-3009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교육 : 매주 목요일반, 토요일반 •교육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교육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 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아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앞 ☎ 02)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 서울·경기 : 02)456-8831 | 강원도 : 019-396-1110  
 | 충청도 : 010-8674-2357 | 경상도 : 011-327-7697 |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